

중국 고대 三達尊 사상의 연원 고찰 - 『詩經』에 보이는 耆老意識을 중심으로 -

노상균*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기로문화 건설의 일환으로 중국 고대 “三達尊” 사상에 대해 그 형성배경과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형성과정 속에서 창조된 상징성을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에 따른 젊은이들의 尊老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필자는 『詩經』의 「大雅」 및 「小雅」의 여러 시편들과 『尙書·周書』의 기록들로부터 德과 爵(지위) 그리고 齒(나이)를 삼위일체로 여기는 “三達尊” 사상의 연원을 찾아내고,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이 사상이 周初의 정치적 효용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아울러 이 사상의 상징체로 서주초의 文王을, 그리고 구원체로 서주말의 召伯虎를 설정하고 이 두 인물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징화와 구현화가 후대 삼달존 사상이 전형화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주제어 : 삼달존, 덕, 작, 치, 시경, 문왕, 소백호, 기로문화, 기로의식

*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1. 序言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달,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 사회복지제도의 구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를 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무려 19.9%에 이르러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현재 정부와 각 분야의 학계를 중심으로 노인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현실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보건과 복지 등 사회학적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인문학적 정신문화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耋老” 의미의 역사적 演變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늙고 병약하고 쓸모없고 스러져가는”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잠재적 의식형태로 굳어져 있는 “老人”이란 용어 대신, 과거에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노인”이란 의미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耋老”란 명칭으로 대체하여, “耋老” “耋老文化” “耋老文學” “耋老意識” 등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창한 바 있다.²⁾

필자는 일종의 “正名論”에 해당하는 위 논문을 필두로 하여, 향후 계속해서 중국의 고대 전적으로부터 노인에 관한 보편적이고 우량한 전통과 가치를 발굴하고 재해석을 가하여 사회적 인식의 폭을 넓히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耋老文化”의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현대사회의 요구에 一臂之力이나마 보태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孟子 시대에 이미 천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었던 “三達尊” 사상에 대해, 주로 『詩經』의 「大雅」 및 「小

1) 정경희, 「노년기 독거현황과 정책적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5』, 2016, 201쪽.)

2) 노상균, 「“耋老” 의미의 역사적 演變 고찰」, 『中語中文學』 제54집, 2013, 3-27쪽 참고.

雅」의 여러 시편들을 중심으로 하고 『尙書·周書』의 여러 편에 나오는 유관 기록들을 보조자료로 삼아 그 형성배경과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형성과정 속에서 창조된 상징성을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에 따른 젊은이들의 尊老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II. 三達尊 사상의 형성배경

중국 고대문화에서 이른바 “三達尊”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맹자이다. 맹자의 다음 언론을 보자:

천하에 통용되는 존귀한 가치로 세 가지가 있는데, 작위가 그 하나요, 나이가 그 하나요, 덕이 그 하나이다. 조정에서는 작위만한 것이 없고, 향당에서는 나이만한 것이 없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기르는 데에는 덕만한 것이 없다. 어찌 그 하나를 가졌다 하여 나머지 둘을 가진 사람을 경시하겠는가?³⁾

이 문장이 주는 요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爵(정치적 지위), 齒(나이), 그리고 德 이 세 가지가 맹자 당시에 이미 천하에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존귀한 가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만을 갖추었다 하여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삼위일체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이다.⁴⁾

지위와 나이 그리고 덕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이를 매우 중시하는 이

3) 『孟子·公孫丑下』: “天下有達尊三; 爵一, 齒一, 德一. 朝廷莫如爵, 鄉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惡得有其一, 以慢其二哉?”(『十三經注疏』 8, 『孟子』, 臺北: 藝文印書館, 1989, 73쪽.)

4) 위 문장만을 가지고 보면, “爵”만을 가진 齊宣왕이 “德”과 “齒” 이 두 가지를 갖춘 孟子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만, 위 절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어울려야 가장 이상적인 가치임을 천명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삼위일체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논지이기도 하다.

러한 사상은 『禮記』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舜, 禹시대부터 존재해왔던 우량한 전통⁵⁾이었으며, 후대의 선왕들이 태평성대를 성취할 수 있는 근본요인⁶⁾으로 여겨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詩經』의 많은 시편들이 『孟子』와 『禮記』의 기록을 입증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三達尊” 사상의 형성배경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小雅·南山有臺』⁷⁾를 보자.

南山有杞，北山有李。	남산에는 가죽나무, 북산에는 오얏나무.
樂只君子，民之父母。	즐거우신 군자님은 백성들의 부모라네.
樂只君子，德音不已。	즐거우신 군자님, 그 덕음이 그침이 없네.

南山有栲，北山有杻。	남산에는 산가죽나무, 북산에는 싸리나무.
樂只君子，遐不眉壽。	즐거우신 군자님, 어찌 장수하지 않으리요.
樂只君子，德音是茂。	즐거우신 군자님, 그 덕음이 무성하네.

위 시에 대해 『毛詩序』는 “현명한 신하를 얻었음을 즐거워한 노래이다. 현명한 신하를 얻게 되면 국가를 위해 태평성대의 기틀을 세울 수 있음이다.”⁸⁾라 하였고, 『正義』에서는 부연 설명하기를, “덕이 뛰어난 군자를 존중하여 등용함으로써 왕은 태평한 국가의 기틀을 세울 수 있고, 바로 선

5) 『禮記·祭義』：“昔者有虞氏貴德而尚齒，夏后氏貴爵而尚齒。”【고대 유우씨(舜)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나이(노인)를 숭상하였고, 하후씨(禹)는 작위를 귀하게 여기고 나이를 숭상하였다.】(『十三經注疏』 5, 『禮記』, 臺北: 藝文印書館, 1989, 823쪽.)

6) 『禮記·祭義』：“先王之所以治天下者五；貴有德，貴貴，貴老，敬長，慈幼。此五者，先王之所以定天下也。”【선왕들이 천하를 잘 다스렸던 요인으로 다섯 가지가 있으니, 덕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연로한 노인을 귀하게 여기며, 연장자를 공경하였으며, 어린이에게 자애스러웠던 점이다. 이 다섯 가지가 선왕들이 천하를 안정시킨 근본요인이다.】(『禮記』, 위의 책, 811쪽.)

7) 이 시는 본래 五章章六句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논문의 논리적 흐름에 의거하여 節錄하였음. 이하 詩도 節錄함.

8) “南山有臺，樂得賢也。得賢，則能爲邦家立太平之基矣。”(『十三經注疏』 2, 『詩經』, 臺北: 藝文印書館, 1989, 347쪽.)

예악제도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며, 더 나아가 국가로 하여금 萬壽의 복을 얻게 하여 그 끝이 없게 해주니 왕이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⁹⁾라 하였으니, 이 시의 주제는 덕이 뛰어난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왕을 찬송하고, 더 나아가 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견하기에도 이 시의 주축을 이루는 주요 개념은 바로 “君子”, “德” 그리고 “壽”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의 “君子”는 기본적으로는 왕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正義』에서의 설명대로 왕이 등용하여 작위를 하사한 賢德을 가진 신하들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이 시는 뛰어난 현덕의 소유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 국가를 태평하게 다스리고, 그럼으로써 시인은 이러한 현덕을 가진 군자가 만수무강하여 국가의 태평성대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축원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이 시에 이미 德과 爵(군자), 齒(壽)가 삼위 일체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魯頌·閟宮』시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俾爾昌而熾, 俾爾壽而富.	그대로 하여금 번창하고 왕성하게 하시리요, 그대로 하여금 장수하고 부유하게 하시로다.
黃髮台背, 壽胥與試.	누런 머리와 북어 등처럼 장수하시고, 장수 하여 다 함께 등용되리로다!
俾爾昌而大, 俾爾耆而艾.	그대로 하여금 번창하고 성대하게 하시리요, 그대로 하여금 천수를 누리시게 하시로다.
萬有千歲, 眉壽無有害.	천년 만년 누리시어, 만수무강에 아무런 해 가 없으리로다.

이 시는 魯 僖公에 대한 가공송덕 시로 대략 B.C. 7세기 중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⁰⁾

9)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10) 『毛詩序』에서 “閟宮, 頌僖公能復周公之宇也.”(閟宮은 僖公이 능히 周公시대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음을 찬송한 시이다.)라 했는데, 이에 대해 異見을

시인이 노 희공의 만수무강을 송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희공 개인의 수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희공과 같은 공덕¹¹⁾을 갖춘 왕이 오래 장수하고 통치함으로써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평안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¹²⁾ 즉, 훌륭한 덕과 공을 갖춘 자가 오래도록 통치하게 되면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안녕이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이러한 통치자에 대한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德, 爵, 齒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三達尊” 사상은 본래 정치적인 효용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추론된다. 위 시에서 “爾”(그대)가 의미하는 바는 직접적으로는 희공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 아울러 그 궁극적 의미는 바로 魯國과 백성이며, 그러므로 시인이 축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영원한 번영과 백성의 평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삼달존 사상의 정치적 효용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 입증될 수 있는데, 다음 『小雅·蓼蕭』 시를 분석해 보자.

蓼彼蕭斯，零露瀼瀼。
既見君子，為龍為光。

其德不爽，壽考不忘。

蓼彼蕭斯，零露泥泥。
既見君子，孔燕豈豈。

宜兄宜弟，令德壽豈。

저 장대한 다복쑥에, 이슬이 흥건히 맺혀있네.
이미 천자를 뵈었으니, 은총과 영광이 가득
하노라.

천자의 미덕 어긋남이 없으니, (天道) 그의
만수무강을 잊지 않으리.

저 장대한 다복쑥에, 이슬이 흠뻑 맺혀있네.
이미 천자를 뵈었으니, 화락한 즐거움 넘치
노라.

형제간 서로 화목하노니, 그 아름다운 미덕
으로 장수하고 즐거우리.

제기한 학자는 없다.(『詩經』, 위의 책, 776쪽.)

11) 『魯頌·閟宮』은 詩經 중 가장 장편의 시로서, 魯 僖公이 周公의 덕업을 계승하여 새로이 종묘를 지어 조상의 제사를 잇고 주위의 세력들을 정벌하여 주공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였음을 대대적으로 歌功頌德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2) 이 사실은 이 시에 보이는 “眉壽保魯”(장수를 누리시어 우리 노나라를 보전하소서!)란 시구가 단적으로 입증한다.

이 시의 주제에 대해, 『毛詩序』에서는, “천자의 은혜이 온 천하에 미쳤음이다.”(“澤及四海也.”)¹³⁾라 하였으나, 朱熹는 “제후가 천자를 조회하고, 천자가 이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어서 자애와 은혜를 보여주었으므로 이 시를 노래하였다.”(“諸侯朝於天子, 天子與之燕, 以示慈惠, 故歌此詩.”)¹⁴⁾라 했는데, 시의 내용으로 보아 朱熹의 설이 더 정확하고 자세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장대한 다복쑥”은 국가의 기틀을 떠받치고 있는 제후들을 비유하며, “홍건히 맺힌 이슬”은 천자가 제후들에게 베푼 은덕을 비유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일차적으로는 천자의 자애로움에 감명받은 제후들이 천자의 “美德”을 찬송하고 “長壽”를 기원한 시이며, 더 나아가서는 제후들과 천자간의 화목한 관계가 결국은 주왕실의 번영과 사직의 영원한 보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인이 즐거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壽”의 개념이 천자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德”을 보유한 천자는 제후들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국가의 평안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국가의 “壽”로 확장됨을 의미하므로, 삼달존 사상이 정치적 효용성으로 인해 더욱 중시되고 발전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小雅·天保』시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吉蠲为饗, 是用孝享.	길일을 택하여 齋戒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孝를 다해 제사 지내시네.
禴祠烝嘗, 于公先王.	약제(여름), 사제(봄), 증제(겨울), 상제(가을)를, 선공 선왕들께 올리시네.
君曰卜尔, 萬寿無疆.	神主께서 전하시기를, 그대에게 내리노라, 만수무강하리다.
神之吊矣, 诒尔多福.	신께서 강림하시어, 그대에게 많은 복을 하사하시네.
民之质矣, 日用饮食.	백성이 순박하여, 일용할 양식 충족하나니.

13) 『詩經』, 위의 책, 348쪽.

14) 朱熹, 『詩集傳』, 北京: 中華書局, 1958, 111쪽.

群黎百姓，徧为尔德.	모든 백성들이 두루 그대의 은덕을 입는다네.
如月之恒， 如日之升.	달이 막 차오르는 듯, 해가 막 떠오르는 듯.
如南山之寿， 不騫不崩.	남산이 영원하듯, 이지러지거나 무너질 일 없으리.
如松柏之茂， 无不尔或承.	송백의 가지가 무성하듯, 혹여나 그대를 계승하지 않음이 없으리!

위 시에 대해 『毛詩序』에서는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보답한 시이다. 임금이 능히 아랫 사람에게 하사하시어 그 정사를 성취하니, 신하도 능히 미덕을 (임금에게) 돌려서 그 윗 사람에게 보답한 것이다.”(“下報上也。君能下下以成其政，臣能歸美以報其上焉。”)¹⁵⁾라 하였고 鄭玄과 朱熹도 이 설을 그대로 부연¹⁶⁾하였으나, 후대의 학자들은 이 설을 부정하고 다만 “신하가 임금에게 축복을 드린 시”라 간주한다.

전편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이 시는 신하가 왕이 조상과 선왕들에 대한 제사를 경건하고 충실히 받들고 백성들에게 덕정을 베풀음을 경하드리고, 아울러 천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왕에게 복록과 장수를 하사하실 것임을 축복하며, 더 나아가 왕실과 국운이 영원히 창성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孝, 德, 壽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孝”가 후대에 정형화된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제사를 경건히 받들고 조상이 드리운 덕을 본받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된 점이다. 이러한 의미는 『詩經』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된다.¹⁷⁾ 그러므로 훌륭한 조상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드리고 이들이 이루어놓은 德政을 부단히 본받는 일은 왕

15) 『詩經』, 위의 책, 330쪽.

16) 『鄭箋』의 내용은 『詩經』, 위의 책, 330쪽을 참고, 주희 설은 『詩集傳』, 위의 책, 104쪽 참고.

17)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大雅·下武』시에 나오는 “永言孝思，孝思維則。”(영원히 조상의 덕을 사모하고, 조상에 대한 사모를 법도로 삼으시네.)의 시구를 들 수 있다.

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대한 덕목이며, 이러한 “孝” 덕을 갖춘 왕은 天으로부터 “壽”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삼위일체적 논리구조가 깔려 있다.

둘째, 이 시에서도 위 「蓼蕭」시와 같이, 왕 개인의 수명을 국가의 명운과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壽”의 개념을 왕 개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의 “壽”, 즉 왕조의 지속적인 변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이 시의 후반부에 나오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남산”은 곧 국가의 영원한 변영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긴 비유적 표현이며, “무성한 송백의 가지”는 곧 훌륭한 자손들이 번창하여 국가를 영원한 반석위에 올려놓을 것을 축원하는 비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덕과 나이 그리고 지위를 삼위일체적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이 삼달존 사상은 표면적으로는 왕이라는 통치자의 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인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좀더 근본적으로는 주왕실의 영원한 변영이라는 궁극적인 축원이자 정치적인 효용성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의 중심 개념은 물론 德이다. 통치자가 조상이 드리운 德政을 받들어 계승하고(“孝”), 훌륭한 덕성을 쌓아 제후들의 충심어린 지지와 옹호를 받고,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시행하는 일 등이 바로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덕목이며, 이러한 덕을 갖춘 통치자는 천으로부터 분명 만수무강과 자손의 번창 등의 복록을 향유받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국가의 영원한 변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유체계가 담겨 있다.

이를 간단히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통치자(“爵”)가 “德”이 뛰어나야 “壽”를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국가의 “壽”로 귀결된다가 된다. 여기에서 사람의 신분이자 행위의 주체인 “爵”을 제외하면, “德”과 “壽”는 서로 前因(전제조건)과 後果(결과적 효용성)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德”과 “壽”의 이러한 前因後果적인 불가분의 관계는 『詩經』뿐 아니라 『尙書』에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관념이다.

『尙書·周書·無逸』에서 周公이 幼主 成王에게 啓導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리하다.

“은나라의 초, 중기 왕들은 정사에 근면하고 백성들에게 덕정을 베프으로써 장수하여 오랜 재위기간을 누렸으나(즉, 中宗은 재위 75년, 高宗은 재위 59년, 祖甲은 재위 33년), 그 이후의 왕들부터는 정사에 태만하고

백성들의 고난에는 관심없이 그저 향락만을 일삼은 결과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짧은 재위기간으로 생을 마쳤다. 그런데 우리 문왕께서는 천명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애호하고 정사에 근면하여 중년에 즉위하신 이후 50년의 재위기간을 향유하셨다.”¹⁸⁾

위 문장에서 周公이 한 말에는 다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 하나는 은나라 역대 왕들의 治亂을 대상으로 귀납적 방식을 사용하여 ‘德政을 베풀어야 장수하고 오래 재위한다’는 논리를 끌어내어 성왕을 계도하려 한 점이다. 또 하나는, 주나라를 개국한 문왕이 초기의 은왕들처럼 훌륭한 德政으로 오랜 기간 재위하면서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지만, 성왕이 祖甲 이후의 은왕들처럼 정사에 태만하고 失德함으로써 왕실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환의식이 짙게 깔려있다는 점이다.

결국 주공이 성왕을 계도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귀납적인 방식으로 해석하여 만든 논리이기는 하나, 이미 주공 시대에도 “德”이 있어야 “壽”한다는 양자간의 前因後果적 사유방식이 존재했다는 점을 여실히 입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上述한 『詩經』과 『尙書』, 그리고 『孟子』에 나오는 삼달존 관련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후대에 이를 보편화하고 전형화시켜서 나온 언론이 아래에 보이는 『禮記·中庸』의 기록이다.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순임금은 참으로 위대한 효자로다! 덕으로는 성인이 되었고 존귀함으로는 천자가 되셨으며 부유함으로는 천하를 소유하셨도다. 종묘에서는 (대대로) 그를 제사지내고, 자손들은 (대대로) 그의 덕업을 보전하였네. 그러므로 심후한 덕의 소유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지위를 얻게 되고, 그에 걸맞는 봉록을 받게 되며, 그에 걸맞는 명성을 얻게 되며, 그에 걸맞는 수명을 누리게 되는 법이다.”¹⁹⁾

위 문장은 위에서 자세히 고찰한 바 있는 삼달존 사상의 완결본이라

18) 『尙書』, 위의 책, 240-242쪽 참고.

19) 『禮記·中庸』: 子曰: “舜其大孝也與! 德為聖人, 尊為天子, 富有四海之內. 宗廟饗之, 子孫保之. 故大德必得其位, 必得其祿, 必得其名, 必得其壽.”(『禮記』, 위의 책, 885쪽.)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덕과 지위 그리고 수명을 前因後果적 상관관계로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그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壽”의 의미를 제사 및 자손과 긴밀하게 연계시킴으로써, 국가의 “壽”로 확장시켰다. 위 문장의 논리적 층차에 의하면, 앞 구의 “宗廟饗之, 子孫保之”가 뒷 구의 “壽”에 해당하며, 그러므로 순임금 개인적인 長壽의 의미보다는 순임금의 “大德”이 자손과 종묘로 대변되는 국가의 지속적인 흥성으로 이어졌다는 의미적 확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순임금을 聖君으로 정형화시키고 이를 통해 삼달존 사상에 상징성과 전형성을 부여하였다.

기실, 「中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면, 「中庸」의 창작시기에 文王은 이미 역사적 인물로 구체화되었으므로, 아직 역사화되지 않은 문왕 이전의 순임금을 내세워 이를 상징화시킨 논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으나, 이보다 훨씬 전인 『詩經』시대에는 문왕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해 보자.

Ⅲ. 상징체의 창조를 통한 사상적 구현

중국 고대인의 사유방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 관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창조된다는 점이다.

관념은 추상적이며 실체가 없는 존재이므로, 특히 정치적인 효용성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를 구체화하고 실체화시켜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후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므로, 상징적인 권위체에 대한 창조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국 고대사상 중에서 “三達尊”이라는 사상 역시 그 형성과정에서 상징적인 권위체가 창조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권위체는 의심의 여지없이 文王이라 할 수 있다. 『詩經·大雅』 “文王之什”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문왕이 각 방면에서 성취한 덕업을 송축한 시가들이란 점

이 이를 여실히 입증하며, 『毛詩序』의 다음 문장 : “天이 殷을 대신할 대상을 살펴보니 주나라만한 것이 없었고, 주나라가 대대로 덕을 닦아왔으나 문왕만한 이가 없었다.”(“天監代殷, 莫若周. 周世世脩德, 莫若文王.”)이나, 이를 부연한 『鄭箋』의 “監은 살핀다는 뜻이다. 천이 사방에서 殷을 대신해 천하를 다스릴 자를 살펴보니 오직 주나라 뿐이었고, 대대로 도덕을 수행한 이 중에서 오직 문왕만이 가장 성대하였다.”(“監, 視也. 天視四方可以代殷王天下者, 維有周爾. 世世脩行道德, 維有文王盛爾.”²⁰⁾)에서 보듯이, 이는 漢儒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대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필자의 소견으로, 문왕을 德의 상징체로 창조한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이자 가장 전형성을 갖춘 작품은 『詩經·大雅』의 「文王」이다. 이 시에 반영된 핵심내용은 이러하다. “文王은 훌륭한 德의 소유자여서 天이 부덕한 殷에서 후덕한 周로 天命을 바꾸어 周로 하여금 천하를 통치하게 하고 殷이 周에 복속되도록 하였으니, 周의 자손들은 天命의 준엄함을 명심하여 文王의 덕업을 끊임없이 본받고 계승하라.” 이 내용은 大雅 시편들 중 이른바 주왕실의 史詩로 알려져 있는 다수의 시가들에 일관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주나라가 은나라를 대체하여 천하의 통치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주왕실의 대표학자인 周公은 “天命靡常”과 “以德配天” 사상을 이용하여 그 통치권의 정통성을 창출하였다. 즉, 天命은 항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天은 德의 궁극적 본체이므로 그 변화의 기준은 바로 德의 有無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중국 정치사상사 최초로 革命에 대한 이론적 기준과 역사적 정통성을 제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심대한 사상적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사상적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주왕실이 실제로 훌륭한 덕의 소유자여야 할 것이다. 즉, 덕을 갖춘 실존 인물의 뒷받침 없이 다만 덕이라는 가치와 이론의 정립에 그친다면 그저 사상누각에 불과하여 아무런 정치적 효용성이 발휘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런데 실제로 문왕이 이러한 중대한

20) 위 인용문은 『大雅·皇矣』에 대한 『毛詩序』와 『鄭箋』의 주석임.(『詩經』, 위의 책, 567쪽.)

인식패러다임의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賢德의 소유자였음이 여러 전적의 기록에 보인다.

우선, 『尙書』의 「康誥」와 「無逸」에 보이는 기록을 보자.

너의 위대하신 부친 문왕께서는 능히 덕정을 밝히시고 형벌에 신중하셨으며, 결코 홀아비 과부같은 무의탁 약자들에게 대만하지 않으셨느니라. 등용할 만한 자는 등용하고, 존경할 만한 분은 존경하고, 경외할 만한 일은 경외하셨으니, (이 도리틀) 백성들에게 밝게 드러냈느니라.²¹⁾

문왕께서는 남루한 옷을 걸친 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토지를 개간하는 공을 세우셨도다. 성품이 자애스럽고 유순하시며 선량하시고 공손하셔서 백성들을 보듬고 보호하셨으며, 홀아비 과부와 같은 무의탁 약자들에게 은혜와 선정을 베푸셨느니라. 아침부터 해가 중천을 지나 기울 때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만백성들의 화합을 추구하셨느니라.²²⁾

또한, 『史記·周本紀』에서는 위 『尙書』의 기록과 『詩經·大雅』의 여러 시편들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문왕의 구체적인 덕정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 선조들의 대업과 법도를 계승하여 준수하고, 仁政을 篤行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에게 자애스러웠다.

둘째, 현명한 자들을 예우함이 낮에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여서 수많은 선비들이 그에게 귀의하였으니, 대표적인 선비가 伯夷와 叔齊였다.

셋째, 洛水의 서쪽 땅을 紂王에게 헌납하면서 (그 조건으로)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酷刑을 없애도록 했는데, 紂王이 이를 허락하였다.

넷째, 제후들이 분쟁이 발생하면 서백에게 와서 판결을 구했는데, 당시 虞와 芮 양국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러 주나라에 들어왔

21) “惟乃丕顯考文王，克明德慎罰，不敢侮鰥寡。庸庸，祗祗，威威，顯民。”(『尙書』, 위의 책, 201쪽.)

22) “文王卑服，即康功田功。徽柔懿恭，懷保小民，惠鮮鰥寡。自朝至於日中昃，不遑暇食，用咸和萬民。”(『尙書』, 위의 책, 242쪽.)

다가, 주나라 사람들이 서로 논밭의 경계를 양보하고 또한 연장자에게 양보하는 풍속이 있음을 보고서 서로 부끄러워 하며 서백을 알현하지 않고 스스로 서로 양보하여 해결하였다. 제후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서백은 분명 천명을 받게 될 군주이다.”라 말하였다.

다섯째, 豊邑을 건설하고 岐下로부터 풍읍으로 도읍지를 옮겼다.²³⁾

위의 두 典籍에 기록된 내용처럼, 문왕이 당시에 남다른 德政과 愛民으로 지배계층들의 많은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었으므로, 문왕의 賢德을 크게 선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德의 궁극적 본체인 天으로부터 受命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만들어 주왕실의 천하통치에 대한 정통성을 창출하는 일이 가능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문왕을 德의 상징체로 창조해야 할 필요성은 통치권의 정통성 창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와 못지 않게 중대한 일은 새롭게 창조한 “天命靡常”과 “以德配天” 사상이 야기하는 사후문제에 대한 우려심이었고, 이에 대한 해결의 차원에서 더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즉, 자신들이 새로이 창조한 이 정치사상에 의하면, 끊임없이 덕을 유지해야 왕조를 유지할 수 있다. 만일 후손들 중 누군가 덕을 잃게 되면 자신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天命靡常”과 “以德配天”의 근본원리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다른 왕조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주공을 비롯한 당시 통치자들은 후손들의 失德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모범적인 교훈을 드리울 만한 상징체가 필요했으며, 바로 이 정치적 효용성으로 인해 문왕의 덕정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상징화했다고 추론된다.

기실 『詩經·大雅』와 『尙書·周書』의 주류를 차지하는 사상 중 하나

23) “西伯曰文王，遵后稷·公劉之業，則古公·公季之法，篤仁，敬老，慈少。禮下賢者，日中不暇食以待士，士以此多歸之。伯夷·叔齊在孤竹，聞西伯善養老，蓋往歸之...西伯乃獻洛西之地，以請紂去炮烙之刑，紂許之。西伯陰行善，諸侯皆來決平。於是虞·芮之人有獄不能決，乃如周。入界，耕者皆讓畔，民俗皆讓長。虞·芮之人未見西伯，皆慙，相謂曰：‘吾所爭，周人所恥。何往爲，祇取辱耳。’遂還，俱讓而去。諸侯聞之，曰：‘西伯蓋受命之君。’...而作豐邑，自岐下而徙都豐。”(瀧川龜太郎著，『史記會注考證』，台北：文史哲出版社，1993，60-61쪽.)

가 이러한 失德에 대한 우환의식이다. 「文王」편의 “天이 하시는 일, 소리도 냄새도 없노라니. 오로지 문왕의 덕업만을 법도로 삼으면, 온 천하의 신임을 얻으리라.”(“上天之載, 無聲無臭. 儀刑文王, 萬邦作孚.”)의 시구나, 『尙書·康誥』의 “가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오로지 문왕이 경외하고 기피했던 일을 살피거라. 가서 백성들을 교화시켜 말하기를: ‘우리는 다만 문왕의 덕업만을 계승하리로다.’라 하여라.”(“乃由裕民, 惟文王之敬忌; 乃裕民曰: ‘我惟有及’.”)의 내용처럼, 혹여나 후손들이 失德함으로써 왕실의 短命을 초래할까 우려하는 정치적 우환의식이 문왕의 덕을 상징화하고 이를 통해 후손들에게 부단한 교훈과 경계심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런데 문왕의 德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문왕의 享年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앞 절에서 인용한 『尙書·周書·無逸』의 내용처럼 덕이 뛰어난 사람은 장수를 누린다는 고대인의 일반적인 인식²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덕이 뛰어나서 천명을 부여받았다는 인물이 단명한다면 자신들의 논리체계에 중대한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왕실의 공고한 존립기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데에서 야기되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고대 전적들이 문왕을 97살까지 장수를 누린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몇 전적의 기록을 보자:

문왕이 천명을 수여받은 때는 중년이었고, 그 후 5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²⁵⁾

또한 문왕은 뛰어난 덕을 갖추었고 백년을 사시다가 붕어하셨습다.²⁶⁾

문왕은 아흔 일곱의 나이에 서거하셨다.²⁷⁾

24) 孔子의 “仁者壽”(『論語·雍也』) 역시 이러한 인식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25) 『尙書·無逸』: “文王受命惟中身, 厥享國五十年.”(『尙書』, 위의 책, 242쪽)

26) 『孟子·公孫丑上』: “且以文王之德, 百年而後崩.”(『孟子』, 위의 책, 51쪽)

위의 전적 외에도, 『詩經·大雅·棫朴』의 시구 “周王壽考”에 대해 鄭玄은 注하기를: “문왕은 이 때 구십여 세였으므로 壽考라 읊었다.”(“文王是時九十餘矣, 故云壽考.”)²⁸⁾라 하였고, 朱熹도 注하기를: “문왕은 97세에 붕어하셨으므로 壽考라 말하였다.”(“文王九十七乃終, 故言壽考.”)²⁹⁾라 하였다.

문왕의 이 97세 향년설은 위 문헌들을 시기적으로 고찰해 보면, 대략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즉, 『尙書』에서 주공이 어린 幼主인 성왕을 훈계 하면서 만든 “文王受命惟中身, 厥享國五十年”이란 논리가 맹자 시대에 이미 통용되었으며, 『禮記』에서 이를 토대로 향년을 97세로 윤색하여 확정 지었고, 후대의 학자들은 이 97세 향년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기록은 접어두고라도, 『禮記·文王世子』에 나오는 내용, 즉 “문왕은 100살까지, 무왕은 90살까지 살게 정해져 있었는데,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문왕이 3년의 수명을 무왕에게 주어서 문왕은 97세에, 무왕은 93세에 서거하였다.”³⁰⁾라는 기록은 분명 터무니없는 無稽之言임이 확실하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지식인들이 이 97세 향년설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에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덕의 化身으로 상징화된 문왕은 그에 걸맞는 천수를 누리야 마땅하다는 일종의 당위성적 인식 형태와 문왕의 장수로 상징되는 왕실의 변영추구라는 정치적 효용성이 그 밑에 깔려 있다.

본래 객관적 사실여부와 문화적 의식형태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다. 문화적 의식형태 및 가치형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인간의 인식태도 및 사유방식이 객관적 사실여부가 아니다. 본 논문에서 문왕을 삼달존의 상징인물로 설정하고 분석한 이유는 그 사실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대인들의 인식태도에 있기 때문이다.

27) 『禮記·文王世子』: “文王九十七乃終.” (『禮記』, 위의 책, 392쪽)

28) 『詩經』, 위의 책, 557쪽.

29) 『詩集傳』, 위의 책, 181쪽.

30) 『禮記』, 위의 책, 391-392쪽.

31) 楊朝明은 문왕의 향년을 61세라 주장한다.(楊朝明, 「文王, 武王享年考」, 『求是學報』 제5기, 1996, 103쪽.)

상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德”과 “壽”의 인과적 상관관계를 주축으로 하여 문왕은 덕의 궁극적 본체인 天을 가장 훌륭하게 섬긴 현덕의 소유자로, 그러므로 天에게 受命을 받아 천하를 통치할 마땅한 통치자로, 아울러 大德의 소유로 인해 97살까지 장수한 인물로, 또한 죽어서도 천제를 좌우에서 보좌하는 신격체³²⁾로, 그러므로 후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상징체로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西周 말기에 이르러서 이러한 전형화된 신격체 및 상징체는 실질적인 정치적 구현체로 그 성격이 변화한다. 이것은 李山이 말한 바와 같이 신격화된 조상숭배로부터 역사적인 영웅형상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³³⁾ 이 변화를 삼달존의 측면에서 말하면, 그 대상이 지고무상한 천자 일인으로부터 맹자가 말하는 다수의 일반적인 “爵”(귀족공신들)으로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하며, 덕의 의미도 신하들의 덕정과 공적을 아울러 포괄함으로써 그 외연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詩經·大雅』 및 『小雅』의 여러 시편에 의하면, 주왕실의 중흥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 周宣王 시기에 많은 업적을 성취한 여러 명의 현신들의 이름이 보이는데, 召伯虎와 仲山甫, 申伯, 南仲 등이 그들이다. 이 중에서도 업적에 관한 기록과 시편의 직접적인 창작의 양 측면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인물이자 삼달존의 대표적인 구현체가 바로 소백호인데,³⁴⁾ 이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자.

32) “文王陟降, 在帝左右.”(『大雅·文王』)

33) “詩篇至此, 不再是死人的安魂曲, 而是活人的英雄詩.”(詩篇들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죽은 이들의 제사곡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영웅시가 되었다.) (李山, 『詩經的文化精神』, 北京: 東方出版社, 1997, 260쪽.)

34) 詩經에서 召伯虎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가로는 대략 6-7편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시의 내용이 소백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작품은 『大雅·江漢』, 『小雅·黍苗』 및 『大雅·崧高』이며, 『毛詩序』에서 소백호가 작자라 밝힌 작품은 『大雅·蕩』, 『大雅·常武』, 『大雅·民勞』이다.(『毛詩序』에 나오는 『召南』의 『甘棠』과 『行露』의 “召伯”은 주초의 召康公奭을 가리켜 해설한 것이므로,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곳에서 특히 언급해야 할 작품은 『召南·甘棠』인데, 이 시가 서주 초기의 召康公奭의 현덕을 노래한 시라고 여겨왔던 전통적인 해설과 달리 梁啓超 屈萬里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召康公奭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召穆公虎(즉, 召伯虎)라 주장한 점이다. 만일 이 주장이 정확하다면, 『召南·甘棠』이

소백호의 시대인 서주 말기 주왕실의 형세는 이른바 “南蠻北狄，東夷西戎”으로 대표되는 강성한 오랑캐들의 잦은 침입과 약탈로 인해 국가의 안녕과 백성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야기되었고, 더구나 안으로는 이른바 “道路以目”으로 대표되는 厲王의 폭정으로 인해 신하들과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이르러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왕실의 存亡之秋에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宣王의 중흥시대를 여는 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이가 소백호이다. 이는 『史記·周本紀』에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왕이 폭정을 일삼고 비판적 언로를 두절시키자 소백호가 강물을 비유로 들어 언로를 막으면 강물의 범람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심으로 간언했으나, 이를 듣지 않아 결국 지배계층들의 반란이 일어난다.

여왕이 반란으로 인해 虢로 달아났을 때, 소백호는 여왕의 어린 태자인 姬靜을 집에 숨겨두었다가 백성들이 집을 포위하자 자신의 어린 아들로 대체하여 태자의 목숨을 보전하였다. 그 후 共和 시대에 혼란한 국가의 정사를 도맡았다가, 공화 14년에 여왕이 죽자 태자 靜을 왕위에 등극시켰다.(즉, 宣王을 옹립하였다.) 또한, 宣王을 보좌하여 문왕 무왕 성왕 강왕 시대의 훌륭한 정치풍토를 본받아서 제후들이 다시금 주나라를 종주국으로 삼게 만들었다.”³⁵⁾

위 『史記』의 기록에 보이는 “宣王을 보좌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긴” 구체적인 내용이 『詩經』의 여러 시편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로는 『大雅·江漢』과 『小雅·黍苗』 및 『大雅·崧高』가 있다.

「江漢」³⁶⁾에서는, 소백호가 선왕의 명을 받아 군대를 지휘하여 淮夷族

소백호와 관련된 三達尊 사상을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하는(즉, 본 논문의 주제와 가장 잘 부합하는) 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趙達夫 선생은 『小雅·天保』의 7편의 작자를 소백호라 주장하였다.(조규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趙達夫, 「中興之業,慷慨之音-周宣王中興功臣詩考論」, 『中華文史論叢』第55輯, 上海古籍出版社, 1996, 127-155쪽 참고.)

35) 『史記會注考證』, 위의 책, 71-72쪽 참고.

36) 원시의 편폭이 길어서 인용을 생략하였음. 아래 글에 보이는 「黍苗」와 「崧高」 시도 같은 이유로 인용 생략.

을 정벌하고 주위 영토를 개척하였으며, 이 공로로 선왕으로부터 岐周의 땅을 하사받고 선조인 召康公奭의 예를 계승하는 예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召公考”를 제작하여 선왕의 업적과 미덕을 기리고 만수무강을 기원한 내용이 마치 史書의 서술방식처럼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黍苗」와 「崧高」³⁷⁾를 연계하여 보면, 선왕이 元舅(큰외삼촌)인 申伯을 謝邑에 봉하고 謝城 건립에 대한 모든 업무를 소백호에게 맡겼는데, 토지의 개간과 성의 신축으로부터 가옥의 건립과 전답의 구획 및 관개수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至難한 업무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수하고 왕실로 복귀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宣王中興의 가장 중대한 대업은 주 왕실을 위협하는 사방의 夷族들을 順服시키는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동남지역의 淮夷族을 대표하는 徐國에 대한 정벌은 이 外治의 중기부를 찍는 일³⁸⁾이며 天子가 친정에 나설만큼 중대한 의미가 담긴 사안인데, 소백호가 왕명을 받고 이 대업을 완수한 것이다. 「江漢」은 소백호 자신이 직접 지은 시로 간주되는데,³⁹⁾ 그러므로 회이족 정벌이라는 대업의 완수를 모두 선왕의 덕업으로 귀속시키고 자신의 업적은 최대한 자제한 채 객관적 서사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于周受命, 自召祖命.”(岐周읍으로 가서 왕명을 받들고, 그대 조상인 소공의 의례를 받들라!)이라는 한 구절만 보아도, 선왕의 소백호에 대한 예우와 당시 그가 이룬 공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소백호가 받은 봉지인 岐周邑은 주왕실의 발원지 중 하나이자 문왕의 출

37) 『大雅·崧高』는 申伯이 謝邑에 봉해져 떠날 때 尹吉甫가 신백의 덕을 찬미하여 지은 송별시(朱熹說)이지만, 시의 내용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소백호가 사읍 건설에 기울인 다방면의 노고와 중대한 업적이 은미하게 반영되어 있다.

38) 樂文開·裴普賢著, 『詩經欣賞與研究』(三), 臺北: 三民書局, 1987, 1494쪽 참고.

39) 『毛詩序』에서는 “尹吉甫美宣王也.”(윤길보가 선왕의 업적을 찬미한 시이다.)라 하여, 이 시의 작자가 윤길보임을 적시하였으나, 후대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설을 부정하고 있다. 시의 내용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소백호 자신이 지은 시라 주장하는 설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王命召虎”라 하여 이름을 직접 거명한 사실이다. 당시 소백호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신분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설사 왕명이라 해도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소백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윤길보가 직접 지은 『大雅·崧高』에서 누차에 걸쳐 “王命召伯”이라 하여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작위로 호칭한 점이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생지이기도 하며, 소백호의 조상인 召康公奭의 봉지(“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그 의미가 대단히 심대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詩에서는 비록 왕의 은총으로 귀결되어 있지만, 기주읍을 봉지로 하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소백호가 이룬 공적과 이로 인한 선왕의 소백호에 대한 신뢰와 존대가 어떠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外治에 있어 정벌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후관리일 것이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선왕은 賢德으로 이름난 자신의 큰외삼촌인 申伯에게 남쪽 제후국들과 이민족들에 대한 통치를 맡기기 위해 신백의 도읍지 謝邑의 건설을 추진한다. 이 사실은 사읍의 건설이 당시 내치와 외치를 겸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안임을 의미하는데, 이 중대하고 至難한 공사를 소백호에게 일임할 정도로 왕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소백호는 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성실하게 완수하였고, 그 결과 제후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주왕실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상술한 『史記』의 기록과 『詩經』 제편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백호는 대의를 위해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태자의 목숨을 보전하고 내란을 종식시켰으며, 축출된 厲王이 사망할 때까지 14년간의 혼란한 나라를 대리 통치하였으며(“共和시대”), 태자를 왕위에 즉위시킴으로써 선왕의 중흥시대를 여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 후 선왕을 도와 동남지역의 회이족 정벌을 통해 남쪽 지역을 평정하고, 신백의 도읍지인 사읍의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이를 훌륭히 완수함으로써 선왕의 중흥시대를 열고 “제후들이 주왕실을 다시금 중주국으로 받들게 만든”(위에 인용한 『史記』의 표현임) 당대 최대의 공로자였다.

소백호의 향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생존 연대는 고찰할 수 없지만, 신백의 사읍 건설이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宣王 중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厲王 시대에 이미 그의 重臣으로서 활동한 점과 14년간의 공화시대의 대리통치 기간을 고려하면, 선왕 중흥시기에는 이미 원로한 대신으로서 정치의 중추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들은 소백호가 “德, 爵, 齒”의 삼위일체를 구현한 “三達尊”의 대표적인 상징인물이었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영웅인물에 대한 기록과 찬양이 삼달존 사상이 맹자 시대에 와서 천하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로 전형화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간주된다.

IV. 結語

위 글에서 필자는 미래지향적인 기로문화 건설의 일환으로, 맹자 시대에 이미 천하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로 전형화된 “三達尊” 사상을 주제로 삼아, 주로 『詩經』과 『尙書』에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형성배경과 구체적인 함의, 그리고 상징체의 창조를 통한 사상적 구현에 대해 자세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에 보이는 바와 같이, 『詩經』의 많은 시편에서 이미 “君子”, “德” 그리고 “壽”의 세 개념이 삼위일체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후대 “三達尊” 사상의 원형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필자가 인용한 시경 작품에 보이는 “君子”는 주로 천자를 중심으로 한 최고통치자의 개념이었고, 그러므로 시의 내용은 주로 현덕을 갖춘 천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원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영원한 번영과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치적 효용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론된다.

즉, “壽”의 개념이 천자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德”을 보유한 천자의 “壽”는 국가의 영원한 번영, 즉 국가의 “壽”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치적 효용성이 “三達尊” 사상이 형성된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文王을 德과 齒의 상징체로 창조하고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以德配天” 사상을 통해 주왕실의 천하통치에 대한 정통성을 창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憂患意識”을 바탕으로 후손들의 失德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점으로부터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西周 말기에 이르러서 그 대상이 지고무상한 천자 일인으로부터 맹자가 말하는 다수의 “爵”(귀족공신들)으로 일반화된 흔적이 보이며, 그럼으로써 德의 의미도 신하들의 덕정과 공적을 아울러 포괄함으로써

그 외연이 확대되었음이 위에서 분석한 소백호와 관련된 시경의 여러 시편이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는 신분제 사회가 아닌 만인평등 사회이므로 삼달존에서 “爵”의 의미와 작용은 쇠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德”과 “壽”는 여전히 서로 불가분의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향후 고령사회에서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할 최선의 가치구범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孔子의 말처럼, 덕을 갖추고 베푸는 자는 모순과 갈등, 분열과 다툼에서 떨어져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仁者不憂”의 개념.), 이것은 곧 바로 건강한 신체활동으로 이어져 장수를 누릴 수 있는(“仁者壽”의 개념) 훌륭한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전 논문에서 “耋老” 의미의 변천과정을 논하면서, 이 “耋老”라는 명칭으로 현재의 “老人”이란 명칭을 대신할 것을 주창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물론 명칭의 중요성에 있지만, 좀 더 심층적인 의미는 “나이드든 老人은 반드시 德을 갖추야 耋老가 될 수 있다.”라는 당위성적인 인식론을 깔고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용천·장동우 共著, 『중국고대 상복의 제도와 이념』, 도서출판 동과서, 2007.
- 노상균, 「“耄老” 의미의 역사적 演變 고찰」, 『中語中文學』 제54집, 2013.
- 솔람미스 샤하르 외 6인 지음, 『노년의 역사』, 안병직 옮김, (주)글항아리, 20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5』, 2016.
- 『十三經注疏』 1, 『尙書』, 臺北: 藝文印書館, 1989.
- 『十三經注疏』 2, 『詩經』, 臺北: 藝文印書館, 1989.
- 『十三經注疏』 5, 『禮記』, 臺北: 藝文印書館, 1989.
- 『十三經注疏』 8, 『孟子』, 臺北: 藝文印書館, 1989.
- 朱熹, 『詩集傳』, 北京: 中華書局, 1958.
- 王先謙, 『詩三家義集疏』, 台北: 明文書局, 1988.
- 朱守亮, 『詩經評釋』, 台北: 臺灣學生書局, 1988.
- 樂文開, 裴普賢, 『詩經欣賞與研究』(改編版)(三), 臺北: 三民書局, 1987.
- 李山, 『詩經的文化精神』, 北京: 東方出版社, 1997.
- 楊朝明, 「文王, 武王享年考」, 『求是學報』 제5기, 1996.
- 趙達夫, 「中興之業, 慷慨之音-周宣王中興功臣詩考論」, 『中華文史論叢』第55輯, 上海古籍出版社, 1996.
- 瀧川龜太郎, 『史記會注考證』, 台北: 文史哲出版社, 1993.

❖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Triple Value(三達尊)
in Ancient China—Mainly with the Aged
Consciousness in the Book of Odes

Ro, Sangkeun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tudy the conceptualization process of one of the ancient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heritages, the so-called, the Triple Virtue(三達尊). By showing the principle meanings and the newly embodied symbolism of this Triple Virtue, this article is prepared to encourage revitalization of the moral virtues and self-identical pride among the elderly and to promote the young people's social consciousness of respecting the elderly.

The author identifies the philosophical origins of the Triple Virtue, implying that the virtuous trinity is composed of morality, position and age, by analyzing poems in 「Daya(大雅)」, 「Xiaoya(小雅)」 of the Book of Odes and archives in 「Zhoushu(周書)」 of the Book of Documents(尙書).

The author especially emphasizes that the concept of Triple Virtue was created by governing classes for meeting the political needs in the Zhou Dynasty. Moreover, by regarding King Wen of the Zhou Dynasty as the symbolic representation in the beginning era of the Western Zhou Dynasty and Shao BoHu as the embodiment representation in the end of the Western Zhou Dynasty, the author performs an in-depth study related to the above two great men.

Finally, the author sheds lights on how symbolic and embodiment representations had played significant roles in formulating a typical model of the Triple Virtue in the following generations.

Key Words : he triple value, virtue, nobility, age, the Book of Odes, King Wen of Zhou, Shao BoHu, the aged culture, the aged consciousness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

